



보도시점

2026. 2. 6.(금) **배포 시**

배포

2026. 2. 6.(금) 17:00

「농협 개혁 추진단」 2차 전체회의 개최

- 내부통제 강화 및 선거제도 개편 등 분과별 논의체계 마련, 세부 개혁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집중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6일(금), 서울 여의도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 (공동 추진단장) 명지대 원승연 교수·농식품부 김종구 차관 : (위원) 한신대 장종익 교수,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이사장, GS&J 황의식 박사, 농제연 장경호 원장, 농본 하승수 변호사, 전농 이용희 협동조합개혁위원장, 한중협 강정현 사무총장, 경실련 임영환 변호사, 참여연대 이광수 집행위원장

이번 회의는 지난 출범회의(1.30)에서 논의된 농협 운영의 투명성 확대 및 내부통제 체계 강화,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농협 경제 사업 활성화 및 도시농협 역할 제고 등 농협 개혁의 기본 방향을 토대로, 세부 과제별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향후 추진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중앙회 등 운영공개 강화, 조합·중앙회 감사기능 제고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관리 강화 및 선거운동 확대와 다양한 제도 사례·쟁점 분석 등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원승연 단장은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 선거제도 개편 등 분과별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과제별로 단기 추진과제와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종구 차관은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하여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은 5월까지 추진단 논의를 통해 추진방향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세진 (044-201-1751)
		담당자	사무관	오현정 (044-201-1726)